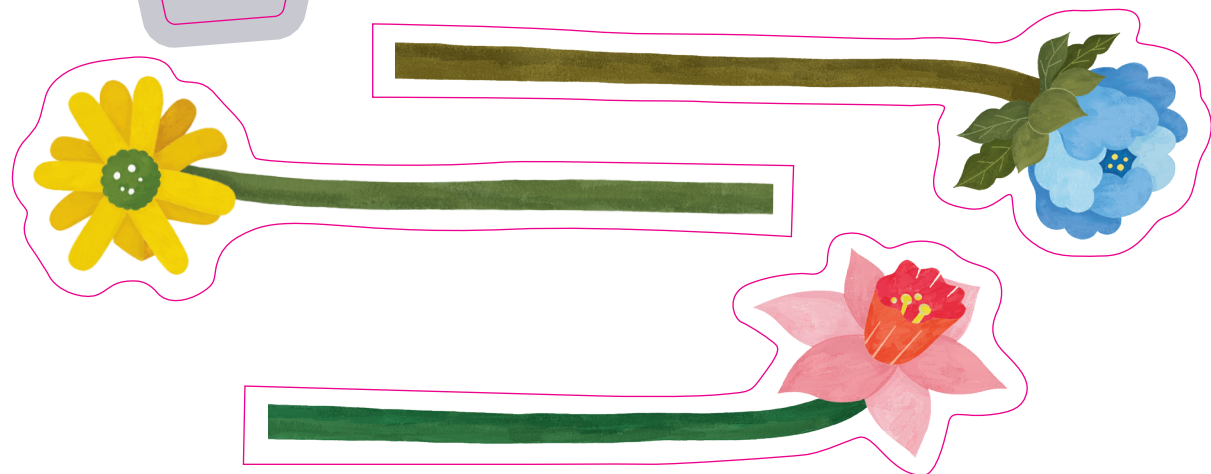


만드는 방법

- ① 도면 속 용무늬를 보고 모란, 넝쿨무늬를 자유롭게 색칠하세요.
- ② 빈칸에는 나만의 무늬를 그려 보세요.
- ③ 그림을 다 그린 후, 세 개의 도면이 서로 연결되도록 절취선을 따라서 조심스럽게 떼어 내세요.
- ④ 접는 선을 따라 안쪽으로 접어 주세요.
- ⑤ 도자기 끝의 돌출된 부분을 반대쪽 칼집에 끼워 양 끝을 연결해 주세요.
- ⑥ 꽃을 떼어 내어 도자기에 꽂아 보세요.
- ⑦ 완성된 청화백자를 세워 놓고 감상해 보세요.



친환경 종이와 콩기름 잉크를 사용했습니다.
FSC PRINTED WITH SOY INK



인술자용
안내서

국보순회전,
모두가 함께하는 180일의 여정
2025 어린이를 위한 감상활동지

푸른 빛의 보물, 왕실 청화백자 이야기



청화백자는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푸른색 무늬를 그린
새하얀 도자기예요.
푸른색을 띠는 물감을
만들려면 '코발트'라는
특별한 재료가 필요해요.

신비의 재료 코발트를 사용한
청화백자에 대해 알아볼까요?

백자 청화 구름
용무늬 항아리
18세기 /
높이 53.9cm

코발트로 쓱쓱! 도자기를 꾸며요

푸른색을 내는 코발트 물감은 페르시아에서 처음 발견되어 중국을 거쳐 조선에 전해졌어요. 장인들은 이 귀한 코발트로 청화백자를 만들어 그 아름다움을 널리 알렸습니다.



백자 투각 청화 모란무늬 항아리
18세기 / 높이 26.5cm / 보물



백자 청화 모란 박쥐무늬 항아리
19세기 / 높이 15.7cm

그림으로 청화백자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살펴볼까요?



왕실에서는 청화백자를 어떻게 사용했을까요?

왕실 행사에서 청화백자는 술을 담거나 비단으로 만든 꽃을 꽂는 그릇으로도 사용했어요.

왕실 그림 속에서 청화백자를 찾아 표시해 볼까요?



기사계첩
18세기 / 가로 36cm / 국보

종이 공예로 만드는 나만의 청화백자



다양한 무늬에 대해 알아보고 나만의 무늬를 그려 보세요.



용무늬

용은 상상의 동물로 조선 시대에 왕을 상징하는 무늬였어요. 용이 하늘을 힘차게 오르는 모습에서 힘이 느껴져요.



모란 넝쿨무늬

꽃 중의 왕이라고 불리는 모란은 부귀영화를, 길게 뻗은 넝쿨은 화합과 조화를 뜻해 행복한 삶을 상징했어요.



나만의 무늬

여러분은 어떤 무늬를 그려보고 싶나요? 나만의 독창적인 무늬로 도자기를 꾸며 보세요!

